

담양군, 지역 역사문화 담긴 '담양 역사박물관' 건립 본격화



화순군, '결혼장려금 1천만 원' 지급 혼인신고 후 1년 지난 만 49세 이하 부부 지원

화순군이 올해부터 결혼장려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 화순군은 젊은 세대의 혼인율 감소로 인한 저출생에 대응하고 지역에 사는 청년 세대의 안정적인 결혼 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결혼장려금을 도입했다. 군은 지난해 3월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개정, 결혼장려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결혼 전부터 화순군에서 거주하다 결혼해 조례 시행일(2020. 3. 10.) 이후 혼인신고 한 만 49세 이하 부부다. 부부 모두 3가지 지원 기준을 충족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기준은 ▲혼인신고 전부터 남자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남녀가 혼인(초혼) ▲혼인신고일 기준 만 49세 이하 미혼남녀다. 외국인과 결혼했다라도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화순군에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오는 3월 10일부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지난해 3월 10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후 1년이 지난 부부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신청서에 본인과 배우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결혼장려금은 총 1000만 원으로 5차례에 걸쳐 200만 원씩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누리집 <공지사항> 게시물을 참고하거나 화순군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061-379-3257)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젊은 세대의 결혼 기피 현상이 팽배해 청년 혼인율 감소로 인한 저출생 문제가 인구감소, 인구절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결혼장려금 외에도 출산양육지원금,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청년·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곡성군, 작지만 강한 농업인 육성에 적극

곡성군이 작지만 강한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경영개선실천 기초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신청 자격은 전업농 미만의 중소규모 가족농으로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농업경영체이다. 접수기간은 이달 26일까지로 각 읍면사무소 또는 기술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

다. 교육은 3월 2일부터 4월 13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어울마당에서 매주 화요일 14시~18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강소농 교육은 농가의 경영 역량을 키우고 경영 마인드를 높여나가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곡성=양해영기자

국립광주박물관과 업무협약 체결...개관 및 운영 활성화 도모위해 노력 문체부에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신청...2024년 개관 목표 사업 추진 중

담양군은 국립광주박물관과 담양 역사박물관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최형식 담양군수와 이수미 국립광주박물관장이 참석해 담양 역사박물관의 개관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

다. 협약내용에는 담양군 출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과 역사박물관 건립 운영에 관한 사항, 더불어 담양의 역사와 문화를 일반에 널리 알리는 다양한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현재 담양 역사박물관은 박물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신청한 상태이며, 2024년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국립광주박물관의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관리 방

식이나 다채로운 전시 및 프로그램, 역사와 문화를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을 공유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지역의 역사 문화 가치를 높일 선도주자로서 국립광주박물관이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과 국립광주박물관은 지난 2015년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한 '남도문화전 VI 瀾陽' 특별전을 개최한 바 있다. 담양=박종영기자

구례군, 시설감자 재배 하우스 난방 대책 마련

영양제 투여·감자 재파종 등응급복구 실시 하우스 온풍기 지원... 희망 농가 접수 중

구례군이 지난 1월 발생한 시설감자 하우스 동해 재발 방지와 지원에 나섰다. 지난 1월 5일부터 10일까지 약 1주일간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한파가 지속되자 용방면 일원 감자 재배 농가에 약 3억원 규모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구례군은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지면서 지하수 사용량이 급증해 하우스 수막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않

은 것을 피해원인으로 파악했다. 수막시설이란 지하수로 수막을 만들어 외부의 찬 공기가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절기 난방 방법이다. 구례군은 구례농협, 시설감자 생산자 단체 등과 함께 영양제 투여, 병해충 방제, 감자 재파종 등의 응급복구를 적기에 실시해서 피해를 최소화했다. 군은 피해발생 원인 정밀 조사에

작수해 결과에 따라 농약대 등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더불어 수막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항구적인 대책으로 시설감자에 적합한 온풍기를 지원하기로 하고 희망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수막시설과 온풍기를 함께 가동하면 앞으로는 동해가 대폭 감소할 것이다"며 "이번 동해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밝혔다. 한편, 구례군에는 27농가가 시설



하우스 약 10ha에 감자를 재배하고 있다. 지난 1월 한파로 인해 총 26농가 9.6ha가 동해를 입었다. 구례=박진호기자

나주시, 설 명절 대비 환경기초시설 특별 점검

정찬균 부시장, 공공하수 및 분뇨·가축분뇨처리장 현장 방문 "비상대응체계 구축 완벽 기해달라"



나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쾌적한 생활환경 관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정찬균 나주부시장은 지난 3일 나주공공하수처리장과 분뇨·가축분뇨처리장을 각각 방문해 시설별 정상가동 여부와 명절 연휴 대비체계, 악취

개선사업 추진계획 등을 집중 점검했다. 운곡동에 위치한 해당 시설에서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일평균 약 2만 2750톤(하수2만2500·가축분뇨150·분뇨100)의 오·폐수를 정화시켜 영산강에 방류한다.

기동취재본부

장성군, SNS 서포터즈 오는 22일까지 모집

모집인원 50명...지역·연령 제한 없이

장성군이 '제5기 SNS 서포터즈'를 이달 22일까지 모집한다. SNS 서포터즈는 축제, 행사, 군정 소식, 장성군 관광명소, 맛집 등을 자신의 블로그나 SNS를 통해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모집 인원은 총 50명으로, 장성군에 관심이 많고 SNS 활동 및 취재가 가능한 사람이면 지역,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장성군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서포터즈에 위촉되면 내년 2월까지 장성군 SNS 서포터즈로 활동할 수 있다. 기동취재본부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 군 <도문대작>

